



낙농가의 의식전환을 기대하면서



김 남 철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독백 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계절에 대한 감각도 무디어가고 있었으나 오늘은 퇴근하는 시간에 버스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잠깐 옆을 보니 내 키보다 큰 코스모스에 꽃이 활짝 피어 있지 않은가?

그것이 반가워 꽃밭 속에 들어가 보았다. 잠시나마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잊으려고 하는 사무실 일이 자꾸 연결되어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특히, 며칠전의 일이 더욱 괴롭게 했다. 우리부의 과장급까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리고 전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석상에서 노력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우유수급 문제에 대하여 장관님께서 걱정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담당자로서 참담한 심정이 되어 얼굴을 들 수 없었고 또한 위 아래분들에게 죄송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내가 낙농업무를 다시 맡은 것이 '94년 12월이었으니 벌써 3년 9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낙농산업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항상 문제를 안고 넘어

왔다.

'95년도에는 낙농진흥법 개정 추진, 우유 위생논쟁인 고름우유사건, 이에 따른 유업체간 광고전 및 고발사건, '96년도의 우유수급불안 및 산업피해구제신청, 착유기 파이프라인의 발암물질 검출, 14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따른 낙농진흥법 자동 폐기, '97년도에 들어 어느 정도 수급은 안정되었으나 조사료 수입자유화의 요구, 연말에 불어닥친 IMF한파와 사료가격 폭등에 의한 낙농경영의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금년도 1월의 원유가격 인상, 이것과 IMF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한 우유소비 감소에 따른 우유수급 불안과 분유의 급증 등 사건·사고의 연속이었다.

오늘은 그 동안 낙농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소감,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낙농가에게 섭섭한 마음을 털어 놓으려고 한다.

물론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전부 잘했는지는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각기 다른 판단을 할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목소리는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으로 함축된다. 물론 정부에서는 그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정부의 노력만으로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겠는가? 서로 맡은 분야 즉 낙농가, 유업체, 유통인,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먼저, 낙농진흥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보자. 개정 목적이 개방화시대에 불합리한 원유 유통구조를 개선하면서 수요에 알맞은 그러면서도 위생적인 원유를 생산하여야 국제경쟁력에 뒤져 있는 우리 낙농업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낙농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었고 그것은 두 차례('89, '96)에 걸친 장기간의 토론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의 조합에서는 겉으로는 민주화와 시장 경제를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조합의 운영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여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개정반대를 주장하면서 정치인을 동원하여 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마저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래도 원유가격은 정부에서 계속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모순되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격론을 거쳐 결정된 사항은 서로 합심하여 순항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안이 확정되었고 시행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금도 원론적인 사항을 논의하자고 한다면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 낙농업이 급신장하였고 앞으로도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심정이겠으나 미래는 그렇지만 앓을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세계 낙농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생산의 자유화, 정부에서의 가격결정, 무질서한 점유제도, 검사의 불공정성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낙농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일 수밖에 없다.

자기에게 조금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나라 전체 낙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결정된 사항은 같이 협조해 주어야 할 것이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서로 토론하면서 시정해 나가는 것이 성숙된 민주시민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주체성을 가진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또한 유업체들도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

두 번째,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이다. 우유수급 안정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앞선다. 최근에는 성수기 도래로 원유가 부족하다고는 하나 소비 주종품목인 백색시유의 소비량이 지난해 대비 10% 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도 벌써 수급안정이 되었다고 하고 있으니 걱정이 많으며 걱정이 걱정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과거의 수급안정 문제는 차치하고 금년도에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하면서 느낀 점을 적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유수급 문제에 대하여 내 위의 모든 상관이 요즘처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적도 없다.

최근 우유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 우유수급이 안정된다고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등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우유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또한 낙농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양인 소비자를 위하여 보다 더 좋은 우유, 위생적인 우유 생산·공급에 동참하여야만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금년과 같은 고통을 다시 받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장·차관님이 홍보요원처럼 뛰실 때 보좌하는 실무자의 심정은 어떤지 누가 알겠는가? 원유위생문제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생산자의 의무임에도 일부 낙농가가 구태의연하게 원유에 물을 타고 이것에 대하여 모 방송사에서 취재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직접 방송사 등을 다니면서 보도되면 낙농이 끝날 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면서 설득하였고, 낙농 경영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반발하는 사료업체에 가격인하를 종용하여 시행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축발기금이 바닥이나 있는 상태에서도 젖소 도태경비로 두당 10만원의 보조지원과 개값 보다도 하락된 젖소송아지 가격 안정을 위하여 송아지를 두당 10만원에 매입토록 결정해 주었고 민간 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에 부탁하여 37일 동안 15천 km의 국토순례도보행진에서 모금되는 성금은 남북한어린이에게 분유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병진쇼나 신문잡지의 특집으로 우유밤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주었고,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국무회의 석상에서까지도 모든 공직자가 우유소비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을 하여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낙농가, 단체 그리고 유업체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가? 동네에서 그래도 유지로 통하기 때문에, 유업체는 자체 노력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적극성이 없어진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직접적인 손익과 관계되면



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유수급의 조기안정을 위해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낙농관련산업인이 모두 참여해야 될 것임에도 나는 손해를 보아서 안되고 네가 손해를 보라고 하는 것을 제3자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시유가격 인하 문제에도 1개월 이상의 시간을 끌고서야 결론을 내린바 있다. 송아지 매입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정말로 실망할 수밖에

그렇게도 적극적이지 않은가? 낙농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사들은 낙농가를 위하여 도보순례를 해 주는데 우리 낙농가, 단체, 유업체는 과연 모금운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낙농가들이 ARS모금에 농가당 2통화씩(4,000원)만 하였어도 지금까지 실적의 배가 될 터인데 참여가 저조하였고, 또한 모 전문지에서 모금하고 있는 운동에 낙농가들은 물론 업체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 간단히 내용을 몰랐다는 핑계만으로 어떻게 보면 의무 책임이다 할 수 있는 것을 회피될 수 있는가 묻고 싶다.

그리고 우유소비촉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협조요청 했을 때 가격인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소비자들은 우유제품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여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료가격도 인하되었기에 원유가격 인하조정을 검토한 바 있다.

이때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축협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자조금 조성과 젖소도태 추진 등 자율적인 노력을 할 것이니 원유가격 인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였고 추진결과를 보아 인하여부를 결정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자조금도 서로 핑계를 대면서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어느 조합의 경우는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참여 여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젖소도태 역시 계획치에 미달된 상태이다.

물론 부산물로 취급되고 있는 송아지 가격이 떨어

에 없었다. 초유도 제대로 급여하지 않은 다 죽어 가는 송아지를 내놓고 10만원을 지원 받겠다고 하는 양심, 매입한 송아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폐사 되도록 하는 처사 등은 한심하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최근 우유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 우유수급이 안정된다고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등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우유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또한 낙농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왕인 소비자를 위하여 보다 더 좋은 우유, 위생적인 우유 생산·공급에 동참하여야만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금년과 같은 고통을 다시 받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다. 이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이 이 업무를 맡으면 제기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은지?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서도 이 자리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후회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낙농가들도 지도자를 키워야 하며, 낙농의 진로를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토론 후 결정된 사항은 따라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뭉쳐서 밀어줄 때 힘도 생기고 인정도 받을 수 있어 낙농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1)